
	<h1>보 도 자 료</h1> <h2>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h2>	
---	--	--

담당기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김홍식 단장(2156-3300), 황현일 사무관(2156-3311)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김현열 국장(3145-5550), 우병민 팀장(3145-5553) 정규중 팀장(3145-5566) 한동수 팀장(3145-5552)
		자본시장조사2국	조효제 국장(3145-5650), 차재홍 팀장(3145-5620)
		특별조사국	조철래 국장(3145-5100), 최영수 팀장(3145-5105)
배포부서	금융위원회 대변인실(2156-9543~48), 금융감독원 공보실(3145-5786, 5790)		
배 포 일	2015. 8. 12. (수)		총 10 매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5. 8. 12.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5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범죄단체 조직원 및 시세조종 전문가 등 14인을 검찰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1 범죄단체조직원이 상장법인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기 위하여 시세조종을 지시하고, 상장사 대표이사는 동 기업매각이 무산된 정보를 이용, 자사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
 - 범죄단체조직원 甲은 상장법인 A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기 위해 동사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담보로 하는 주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문가인 乙, 丙, 丁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고,

乙, 丙, 丁은 시세조종 전력자 3명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총 1,724회의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A사 주가를 약 4배 이상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익을 취득

- 상장법인 A사의 대표이사는 최대주주 지분매각절차가 무산되자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A사 소유의 자기주식을 매도하도록 하여 A사가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가 있음

[[붙임] 'A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및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참조]

2 상장법인의 업무집행지시자가 회사의 손익구조 악화 정보를 이용,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

- B사 업무집행지시자 甲은 동사의 2013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익구조 악화'라는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B사 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붙임] 'B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3 일반투자자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시세조종

- 일반투자자 甲은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통한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수십개의 증권계좌를 통해 총 1,337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C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약 10여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붙임] 'C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4 담보가치 하락 등을 막기 위해 다수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한 혐의

- 甲은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상장법인 D사 주식 보유물량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시 주식담보가치 하락을 막고자 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등 종가형성에 관여하였으며,
- D사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5% 이상 대량보유보고 의무 및 10% 이상 소유주주(주요주주)로서의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붙임] 'D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⑤ 폐쇄형 SNS(밴드)의 은밀성을 이용한 신종 시세조종 등

- 甲은 지인인 前 상장법인 대표 乙로부터 '코스닥 상장법인 E사와 코넥스 상장법인 F사의 합병'정보 등을 제공받은 후, 동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네이버 밴드 회원을 동원하여 E사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가 있음
- 前 상장법인 대표 乙은 E사 주식을 매매할 목적으로 甲에게 'E사와 F사가 합병 후 중국투자자가 E사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전달하는 등 위계 사용에 의한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음

[(붙임) 'E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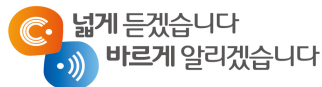
-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 ☐ 아울러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붙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1. A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및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범죄단체조직원이 상장법인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기 위해 인수대상 주식의 담보대출 금액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문가 등을 동원하여 기업인수가 임박한 시점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
- 한편 동 상장법인의 대표이사는 경영권 매각이 무산되자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사주를 매도하도록 하여 손실을 회피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범죄단체조직원 甲은 상장법인 A사의 경영권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기 위해 인수대상인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최대주주 지분매각이 임박한 시점부터 평소에 알고 있던 시세조종 전문가 乙, 丙, 丁에게 시세조종을 요청하였고,

乙, 丙, 丁은 시세조종 전력자 등인 戊, 己, 庚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13.2.18.~3.11. 기간 중 차명계좌 등을 통해 상한가 매수, 고가매수, 허수 매수 및 시·종가관여 주문 등 총 1,724회의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A사 주가를 4배 이상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일반투자자에게 매도하여 총 3억 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상장법인 A사의 대표이사 申은 '13.3.12. 최대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최대주주 지분매각절차가 무산되었다는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자사주 신탁의 수탁자인 증권사로 하여금 A사 소유의 자기주식을 매도하도록 하여 약 323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범죄단체조직원]

乙, 丙, 丁, 戊, 己 [시세조종전력자]

庚 [일반투자자]

申 [A사 前 대표이사]

A사* [코스닥상장법인]

* 양벌규정 적용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2팀장 우병민
(☎02-3145-5553)

2. B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상장법인의 업무집행지시자가 동사의 2013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익 구조 악화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 공개 전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상장법인 B사의 업무집행지시자 甲은 동사의 2013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익구조 악화'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중인 B사 주식 전량을 매도하는 한편, 지인에게도 동 정보를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약 23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B사 前 업무집행지시자]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5팀장 정규중
(☎02-3145-5566)

3. C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일반투자자 甲이 단기간 내 매매차익을 통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C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지방 중소건설회사 회장 甲은 단기간 내 매매차익을 통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수십개의 차명 및 지인 명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시가·종가관여주문 등 총 1,337회(2,829,090주)의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함으로써 C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약 1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일반투자자]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7팀장 차재홍
(☎02-3145-5620)

4. D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일반투자자 甲이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D사 주식 보유물량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주식담보가치 하락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등 증가형성에 관여한 혐의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 일반투자자인 甲은 주식담보대출 등을 이용해 상장법인 D사 주식 보유물량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D사의 주가 하락시 주식담보가치 하락을 막고자 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형성에 관여한 혐의가 있음
- 또한, 甲은 동 종목을 대량 취득하는 과정에서 5% 이상 대량보유 보고 의무 및 주요주주(10% 이상 소유주주)로서의 소유주식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일반투자자]

문의 : 특별조사국 특별조사1팀장 최영수
(☎02-3145-5105)

5. E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일반투자자 甲이 지인인 乙로부터 '코스닥 상장법인 E사와 코넥스 상장법인 F사의 합병' 정보 등을 제공받고 시세차익을 얻고자 네이버 밴드 회원을 동원하여 E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
- 前 상장법인 대표 乙이 E사 주식을 매매할 목적으로 甲에게 'E사와 F사가 합병 후 중국투자자가 E사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전달하는 등 위계 사용에 의한 부정거래를 한 혐의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일반투자자 甲은 지인인 前 상장사 대표 乙로부터 '코스닥 상장법인 E사와 코넥스 상장법인 F사의 합병' 정보 등을 제공받고 동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E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네이버 밴드 회원을 동원하여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시가·종가관여주문 등 총 3,256회(3,632,315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가 있음

- 甲은 주식투자 유료카페에 가입한 투자자들을 네이버 밴드로 유인한 후, 밴드회원들에게 매매시기·방법 등을 지시하며 E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주도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甲의 지인인 前 상장법인 대표 乙은 甲에게 전달한 'E사와 F사의 합병'이라는 정보가 네이버 밴드회원들의 매매거래 유인에 이용된 점을 알고

E사 주식을 매매할 목적으로 甲에게 'E사와 F사가 합병 후 중국투자자가 E사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전달하는 등 위계사용에 의한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수사기관 통보 : 甲 [일반투자자], 乙 [前 상장법인 대표]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3팀장 한동수
(☎02-3145-5552)